



사철나무

과명 : 노박덩굴과
 학명 : *Euonymus japonica*
 영명 : Evergreen Euonymus,
 Evergreen Buring Bush
 한명 : 和杜中, 恩仙木, 冬青
 일명 : まちき

▲ 사철나무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부지역에서 추운겨울에 의연하게 푸르름을 간직한 채 지내는 나무들은 대부분 침엽수들로서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측백나무들인데 잎이 넓은 상록수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사철나무는 추운곳에서 드물게 보는 상록 활엽관목으로서 남쪽 제주에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와 황해도에까지 자생한다. 남쪽지방에 많이 자생하는 상록활엽수가 많은데도 이 나무를 사철나무라고 이름을 붙인것은 상록수를 대표하는 나무로 취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외에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하니 아시아의 상록수로 부를만 하다.



최 명 섭
 임업연구원

1. 생태적 특성

중부이남의 해변에 자생하며 정원수로 식재하고 있는 상록활엽관목으로 높이 5m까지 자라며 만주 중국 일본에도 분포한다. 바닷바람과 염기에 강하여 바닷물과 접하여도 피해를 입지 않으며 그늘에서도 잘 견디며 수세가 강건하며 중성식생으로 습지와 건조지에서도 생육하며 맹이력이 좋고 대기 오염에도 강하여 도심에서도 적응력이 강하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직립하지만 가지가 굵게 많이 나와 수관이 퍼지며 어린 가지는 녹색이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3~7cm, 넓이 3~4cm의 긴 타원형으로 윤채가 있고 질은 녹색이다. 꽃은 양성으로 잎과 가지의 겨드랑이에 취산화서에 달려 6~7월에 지름 7mm내외의 녹색 꽃이 피며 열매는 지름 8~9mm로서 둥글고 10월에 홍색으로 익는다. 식재하고 있는 사철나무의 유사종으로는 잎이 넓은 타원형으로 길이 5.0~7.5cm인 것을 무룬나무(var. *macrophylla*), 잎의 길이 6~9cm, 넓이 2.0~3.5cm인 것을 긴잎사철나무(for. *longifolia*), 잎의 주위에 흰 반점이 있는 것을 은태사철(for. *aureo-variegata*), 잎에 황색반점이 있는 것을 금사철(for. *aureo-marginata*), 잎에 황색과 녹색 반점이 있는 것을 황록사철(for. *viridi-variegata*)이라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우리 홍릉수목원의 정문 방호원이 근무하는 뒤편에는 거의 햇빛 들지 않는 큰나무 그늘인데 브룩담을 헐고 목재울타리로 교체하는데 어떤 수종을 하층에 식재해야 할것인지 고심하던차 몇 개월 전 서해안 섬에 식생조사를 나갔다가 확인한 사철나무와 줄사철이 생각나서 실험삼아 하층에 사철



▲ 사철나무

나무와 줄사철을 식재하였다니 지금은 완전히 피복되어 노출된 토양을 완전히 덮었다. 그전에는 비음도가 높은곳이면 맥문동이나 식재하지 하다가 요즘은 줄사철 식재를 권장하고 있다. 여타의 어떤 수종이 그러한 그늘에서 견디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리고 맹아력이 강하여 생울타리로서도 다른 어떤 수종에 손색이 없어 울타리목으로 식재하며 수형조절이 자유로워 토피아리로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번식이나 삽목번식이 모두 이용되는데 종자 번식보다는 삽목번식을 하는 것이 좋다.

- 삽목번식

봄 싹트기 전과 장마 때, 그리고 가을의 9~11월까지 할 수 있다. 삽수는 봄에 삽목할 경우는 지난 해 가지를 잘라쓰며 여름과 가을에는 그해에 자란 가지의 단단하고 굳은 것을 쓴다. 길이는 10cm정도로서 세마디정도 붙으면 된다. 밑쪽 잎은 따내고 남은 잎은 반 정도 잘라버리고 모래나 진흙에 1/3정도 묻히게 꽂는다. 삽목상 반그늘지게 차광하여주고 새싹이 3cm정도 자라면 이식하여 비배한다.

- 증자번식

가을에 씨가 익으면 채취하여 건겉질을 제거하여 건조하였다가 이듬해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한 후, 파종한다.

5. 그 밖의 용도

사철나무의 껍질은 한방에서 이뇨, 강장제로 사용하며 졸업시즌에 꽃다발을 만들때 사스레나무나 동백나무 가지를 보조재로 사용하는데 사철나무를 써서 꽃다발을 만들어도 보기 좋다. 